

- 1 在日僑胞救靈
- 2 祖国統一實現
- 3 韓日兩國和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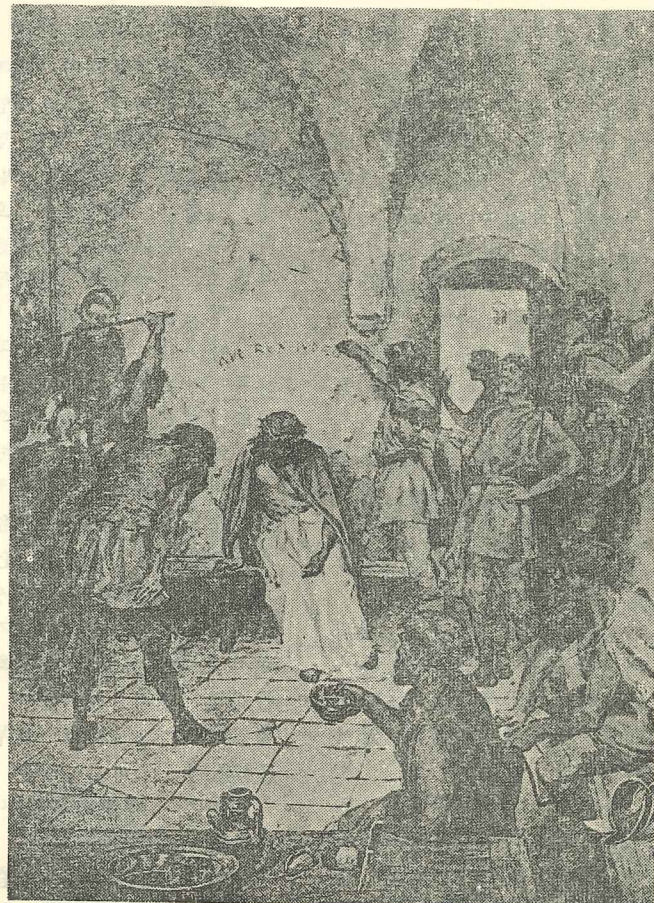
主義와 思想은 다르나 同胞가 아니나

서로 손을잡고 위로하며 돕고 살길을 찾자

가끔 일본인과 한국인을 비교할때 우리가 모든면에서 배우지 아니하면 안될 입장에 있다것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나 과거에 있어서 세계에 자랑하던 일본인이 오늘에는 그것을 반성하고 있는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민족은 강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이격등하는 새 시대에 낙오자가 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먼저 정신력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일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지면을통하여 여러 형제자매 들에게 정신력의확립을 고창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도 참선양과 생명력을 전파하는 우리의 그리스도 교회를 무시 하고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단일민족이란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토가 양단되고 민족은분열되어 통일을 원하는 소리는 있으나 우리들의 마음은자본오열의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일본땅에서 우리는 이런 상태로서는 도저히 살아가갈수 없읍니다. 같은 동포끼리 서로 도와주고 동정하며 위로하며 협력하는 관계가 절대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상이 다르고 주의가 다르니까 못한다곤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사상과 주의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동

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상과 주의는 아무리 구상하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것인줄 압니다. 자상에차이가 있고 주위에 다름이 있을지라도 인정이나 마음이나 사랑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독일민족을 배울시다 그들은 정부는 둘이지만 민족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서로가 사랑의 부족을 반성 하여야 하겠읍니다. 서로 사랑하는게 모든 문제 해결이 있꼭 하나되는 길 이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새 마음을 조성하는데 있음을 발견 하시기 바라고 권하는바입니다.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란 이름은 영영 말살못 하리라 옷을 벗기우곤 가시관을 쓰고 매를 맞으시며 조롱을 받으시되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생각하시고 깨닫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야 말로 구세주시다 승리는 그에게 있다

예수전 (48) 화보

이 그림은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는 예수다 (중앙) 현명하고 지혜롭다는현대인들이 무의식중에 예수를 그리스도 라고 부름과 같다 회당들을 부수고 교회의 조직을 해산

이 건설되는 일이다. 우리 민족의 3분지2를 차지하는 우리 남한에 있어서 자유한국이 확고히 설때 이는 참으로 우리 전 민족에 있어서의 민주 세력이 될 것이다. 우리 남한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있어서 자립적인 무수한 크고 작은 사회 단위들이 구성되어서 그것이 상당한 풍파에도 불구하고 견디어 낼만하게 될때 이것은 결국 통일되는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 사회 형성의 민주적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서들의 팀활동을 개시했다. 1964년도의 성서반포 목표수는 150만권이었는데 10개월간에 그 목표를 초과한 162만 7천2백6십2권을 반포했다.

성서는 교파의 구속없이 전체 국민들의 각계 각층에 침투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새 세대의 일꾼들은 성서를 읽어 새로운 바탕에서 자기 인간 형성과 아울러 민족 국가에 이바지할수 있어야 할것이다.

崔益守牧師委任

최익수목사님은 한국성경교회에서 수교하시다가 제일교포에게 선교하시려는 결심과 사명을 가지고 일본에 오셨다. 제20회 총회시에 제일대한기독교회 총회에 가입하시고 2월27일에는 広島교회목사로 위임식을 거행했다.

성경을 읽고 새 세계를 만들자

성서공회에서는 1965년도에 성서 2 백만권을 반포할계획을 세우고 전체 권

南北統一은 우리의念願

어느사회가 幸福할 것인가 (1) 한 절 하

남북 양단후 신도들은 우리 국토의 통일을 위하여 줄곧 기도하여 왔다. 그러면서도 통일이란 하나의 「생각」에 불과한 전연 불가능한 것으로 공인 되어 왔다. 그러나 근자에 「통일」이란 것이 하나의 꿈이 아니요 현실이란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은 예기치 않았던 것이 우리 위에 엄습하여 오는듯이 느끼게 되었다. 그 생각지 못하였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중립 통일」이다. 더우기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들을 놀라게 한 것은 박대통령이 수년내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새로 열린 「중립 통일」의 가능성에 호응하는 듯하는 인상을 준 데서였다. 물론 후에 그의 공식 발표를 들을 으로서 비로소 안심을 하기는 하였으나 온 민족이 난미 없는 방향으로 물려들어 가지 않는다는 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

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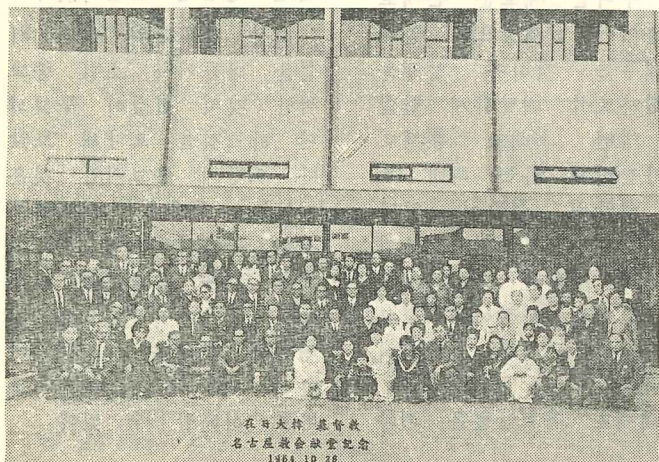
통일에는 실상 「자유통일」이나 「노예 통일」이냐의 두 길밖에 없는 것이다. 「노예통일」을 우리가 무방타하면 어찌 오늘날까지 양단된채 있겠는가? 이북을 내 말한다면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진실로 노예통일은 쉽고 자유통일은 어렵다. 현재남한 사회만 가지고도 노예주의의 부단한 위협하에있거든 하물며 통일되는 혼란상 아래서 어느 독재가 등장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어찌하여서든지 노예통을 피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자유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자유통일이 가능할까. 어떤자는 말하기를 통일에 앞서서 우리 남한에 있어서 먼저 민족 주체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혹은 윤리적인 농촌경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극히 부분적인 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실문제와는 동떨어진 하나의 판넌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통일로의 확실하고 현실적인 길은 통일에 앞서서 우리 남반부에 자유 한국

名古屋教会

1934년 10월에 淸正현당식을 거행했다

담임 박명준목사 장로는 서재훈 김선문 김광수
박현설 조원국
부설 영신유치원도 있다



在日大韓基督教會
名古屋教會記念
1964.10.28

高杉氏発言은 日本国民大部分의心理가 아닐까 아세아全体人民에게 謝過해야 한다

제7차 한일회담 일본측 수석대표 다카스기(高杉)씨는 취임후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모욕적 발언을 했다

◎ 혹자는 일본의三十六년간 조선 통치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 하나 우리는 좋은일을 했었다 그 보다二十년만 더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 조선인에게 창씨개명을 시킨 것은 일본인에 동화되기 위한 것이었다 결코 착취거나 압박이거나 침략이 아니었다 등등

이와 같은 발언에 내외의 진로가 옥신 각신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몇마디 할말이 있어서 붓을 든다

우리는 이런 발언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수 있을까 만일 한마디 말도 바르게 못한다면 그 입은병 어리거나 그 어느 세력에 아부하는 자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한편 우리의 입을 막는자가 있다면 그들은 매수된 테로단과 다름이 없으리라 우리는 일본사람들의 대부분의 심정을 여기서 읽을수 있을듯하다

高杉晋一の 한마디의 발언의 엇구를 들과 논한다면 우리가 피해 망상자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장시간 이야기한 전체 줄거리가 우리 민족을 무시 능욕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언사임을 우리는 주목하고 반박하는 것이다

한일회담이 시작된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일본대표라는 자들의 발언에는 일관된 제국주의적 언사가 있음을 묵과할수 없다 구보다폭언 사와다폭언 등이

있었는데 또다카스기의 폭언에는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한 과열치한 고자세임을 폭로했다 그들은 이 말을 취소하지 않았다 발언한 사실이 없다거나 오해라 꼭 할뿐이다 사실들은 사실로 인정하고 잘못된것은 잘못했다고 해야할 것이 아닌가 그렇기는 고자하고 「한국에 사과하라는자들도 있으나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까지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민족적으로 분노를 금할바 없다 국내외의 각 정당과 언론기관 사회단체와 학생들 문화인을 위시한 각계각층에서 분격하여 한일회담반대에 까지 일어났다 한국정부는 그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구렁이 같은 정치가들은 은폐적 언사로 답변한 것뿐이다

우리 기독교자들은 사실은 사실대로 밝힐 것을 주장한다 깨끗한 정치교섭으로 양국간의 국교가 재개되기 위하여는 사실을 은폐할필요가 없을줄 안다

국교정상화는 절대 필요한 일이지만 능욕을 받고도 굴욕적 외교관계를 수립할 필요까지 없을것이다 우리기독교자들은 일본기독교자들에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용서가 성립될수 있으나 사실을 고백하곡 용서를 구해야 화해가 있을 것인즉 우리의주장이 그릇된 것이라곤 생각하느냐

한일합방 직전에 체결했던 을사조약에 한국의 영토와 황실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일본이 보장할터이니 한국의 외교권 사법권 치안권과 아울러 군사행동에 필요한 편의를 보아달라고 한 침략의도가 오늘

에도 어디엔가 숨겨져있는 것 같은 우려를 갖게된다 하나님과 한국조약에 청백한 양심으로 회담이 추진되기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미분명 불쾌한 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실언의 사과를 한후에 용서가 성립될수있도록 일본인 전체의 마음자세가 먼저 있어야 안심할수 있으리라라는 점을 말해 둔다

酒草와 信仰問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를 믿으시라 고 하면「나는술과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하는 말로 대답을바

宗教는 人間性을 弱화시킨다 非宗教化的 基督教의課題

디트리히 본회퍼는 옥중에서「종교없는 그리스도교」를 주장하였다 종교는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할례로 부터의 자유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것은 결코 종교인이 된다는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에다 무엇인가 덧입힌 종교인이 되는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순수한 인간이 되는것이라고 하였다 종교란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악세사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종교로부터 자유하는 것 곧비종교화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종교 또는 종교적인것과 비종교화란 무엇을 말하는것일까

첫째 종교는형이상학적이란고 한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말할 때에도 천지천능이니 하는 추상적인용어로써 멀리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역사적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구체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 속에 계시는 것이며 우리들의 생활 속에 계시

꾸려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된다

이 말에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수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한다 는 선입관과 자기는 술과 담배를 끈을수 없다는것과 술과 담배 피우는 것 만을 죄악시 하는 견지에서의말 같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금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새사람이거나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의 자언행에서 금주 금연이 나온 것이 오늘의그리스도인의 체신에 장식화된 것 뿐이다

새사람된다는 선행조건이 금주금연은 아닌것이다 금주금연을 할수 없을지라도예수를 바르게 알려는 생각만 있으면 그 생각을 억제하지 말기 바랍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혹은 술을 마시면서 라도 예수를 알아 보시도록 하십시오

둘째 종교는 이기적이요 개인주의적이다 종교인들은 자기의 영혼의 구원에 흥미를 가지고 활동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와 더불어 타인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이다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타자인 이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살곡 돌아가신 분이였다

셋째 종교는 사후 세계에서 영혼 구원에 흥미를 가지고 활동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하늘 나라와 의를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죽은 영혼이기보다 지금 여기서 살곡 있는 우리들이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희망은 그 미래의 현상이기 보다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이세상으로 돌려 보내주는 것이다 영생을 가진자로서 대담하게 현실을 액면 그대로 통채로 받아들이게 하는 비에 부활 신앙의 실증이 있다 그러므로 금욕주의와 불법주위가 현실을 도피하려는 종교인들의 주장이요 결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것이 아니다

네째로 종교인들은 죄라

人事往来

● 김신환 목사(大阪築港教会)는 일년간 본국 연세대학 연합 신학원에 유학하게 되며 3월6일 출발했다

● 김승준 강도사(改革派神學出身)는 본국 유학차 3월8일 전변으로 小倉출항 신학기부터 신국신학대학에서 일년간 공부하리라 한다

● 이태우(同志社大學神學部正身)는 한국신학대학에 유학차 3월23일 출발예정

● 김종원(韓國神學大學出身)는 同志社大學 신학부에서 금후 2년간2신학연구를 하리게 되었는데 그동안 京都교회를 도우리라한다

● 강근환(聖潔敎神學出身)은 오는 봄부터 同志社 신학부에서 2년간 공부 하리라 는데 그간 枚岡교회를 도우시리라 한다(두분은 본국에서도 교역하시던 강도사시다)

든가 사망 이라든가 하는 인생의 리면과 약점과 극한점에서 살고 있다 말하자면 삶의 한 복판이 아니라 인생의 변두리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듯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해답자로 계시는것이 아니라 실은「인생의 한가운데」에 살아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나 실망이나 죽음에서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날것이 아니라 건강과 소망과 삶의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야 할것이다

끝으로 종교는 거룩한 세계를 빙자하여 인간성을 상실한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성을상실한「종교적인 인간」이아니라 이 세상의 풍부하곡 윤리적인 삶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인간인것이다 그리스도는 거룩한종교인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평범한 인간이었다

이상 본회퍼의 옥중 서신을 더듬어서 소위 종교적인 것의 진상이 무엇이냐 하는것을 요약해 보았다 요컨대 종교적인 것은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곡 살기 위하여는 비종교화해야 하고 종교없는 기독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할 때만이 성경적인 메시지를바로 이해할 수 있다

キリスト教のいろは
島村龜鶴著 定価180円
恋 愛 論
高木幹太著 定価240円
私の人生論
北森嘉蔵著 定価250円
山上の祝福
菊池吉弥著 定価200円
対話の神學
北森嘉蔵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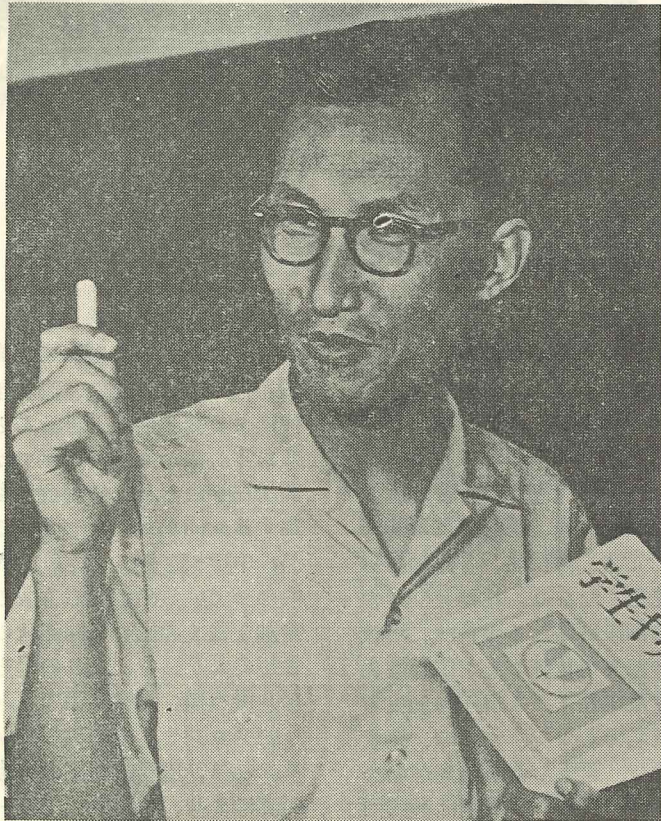
生きる意味について
佐古純一郎著 定価230円
聖書とところどころ
北森嘉蔵著 定価220円
聖書入門
北森嘉蔵著 定価240円
愛と憎しみについて
北森嘉蔵著 定価280円
キリスト教問答
佐古純一郎著 定価220円

教 文 館

東京都中央区銀座4の2

振替東京11357

ずいひっ



隣人不在の感覚

去る七月、アルゼンチンのコルドバ州にある国民保養地「エル・リキ」の 호텔에서、世界学生キリスト教連盟の総会が開かれた。わたしは松村克己・竹中正夫両教授をはじめ、日本のキリスト教運動の代表者六名のお供でそれに参加した。会議中毎日の昼食前に礼拝がもたれた。

二週間にわたる会議で、スペイン語の読めない参加者は世界や自分の国のニュースに飢えていた。そこでアルゼンチンの学生が、私設放送局の名のもとにその日の大事なニュースを集めて、礼拝前にアナウンスしてくれた。ニュース源が南米のラジオと新聞であるゆえに、南米・北米・ヨーロッパを中心とした出来事に限られていた。当時、毎日のように報道されたのは、キューバへの経済封鎖に対する南北米諸国の立場と、米国における黒人暴動・米共和党のゴールドウォーター大統領候補に関することであつた。

二週間の間、アジアに関するニュースは三つ報道されただけであった。インドでコレラが流行し、数名が死亡したこと、韓国動乱終結記念日のこと、日本海に面した日本のある地方に水害があり、罹災者が相当数出たということであつた。われわれの意識の上で南米がはるか彼方にあるように、南米にとってアジアははるか向こうにあることがよく

わかった。

こうしたニュースを聞いたまゝで礼拝が待たれた。礼拝では選ばれた各国の学生代表が毎日祈ることになっていた。学生代表たちはその日ニュースをとりあげ、それに関する真剣なとりなしの祈りを捧げた。

アフリカの学生が米国の公民権闘争のため福音による救いと和解を切実に祈った。アルゼンチンの代表は、日本でおこった水害のため苦しんでいる人々のために、慰めを求める祈りをした。わたしはこの礼拝に連なり、全世界におよぶキリストの主権と、そこに召されて、お互いの問題を共に担っている一つの神の民を実感し、いいしれない感動にひたつた。

日本に帰って、あるキリスト者青年の集会に参加した。そこでも、日礼拝がもたれた。わたしは若い司会者たちの祈りを聞いて、その内容の貧しさには、いまさらのごとくおどろき、失望した。そこでは自分たちの信仰の確立と、そ

信仰の常識

社会生活に於いて常識とかデリカッションが必要なのは言うまでもないが、キリスト信仰に於いても、常識、デリカッションとも言うべきものが必要である。常識を欠いている人は本当にどこでも困ったもので

の日のプログラムの祝福が祈られるのがせいぜいであつた。かれらの祈りは自分たちの領域から一步も出なかつた。この祈りの狭さ、その貧困はどこから来るのだろうか。長い間孤立した日本の地理条件、その風土と歴史につちかわれたところから来るのだろうか。日本の教会の歴史の浅さからあるいは、日本の教会の閉鎖性？から来るのだろうか。

わたしは日本に二〇数年にわたって厄介になっているが日本人の隣人不在の感覚には悲しい思いのする時がある。日本には約六〇万の韓国人が住んでいる。その多くは過去の韓日の不幸な歴史を背負って生きている。その三分の二は日本で生れた者たちである。しかし、第三国人——汝としての隣人でない——といわれ教育、職業の場であられもない差別をこうむっている。こうした問題を訴えても、「知りませんでした。」という無関心な返事となって帰ってくる。——最近キリスト者学生の間にはやや関心が見えて来てうれしい——アメリカにおける黒人問題が話題にのぼるがそこでは政府も教会も知識人も公民権のための与論をおこしている。日本にそういつた与論形成がないのはなぜだろうか。

日本のキリスト者青年には鋭い政治感覚がある。しかしそこには宙にういたイデオロギーはあっても、やはり隣人は不在である。政治・社会・文化・広くは世界のあらゆる領域で、キリスト者が証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すれば神の民・祭司の国として召されているわれわれの祈りに、必然的にとりなしがはいってこないだろうか。最も正直に自己をさらけ出す神への祈りに、とりなしが欠けていることは、われわれの信仰が現実の問題にかかわるといえないが、いまだ地についていない言葉だけのプレー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からうか。これは日本の若きキリスト者になげかける言葉であると共に、わたし自身に向かつての反省である。

(在日大韓基督教会 川崎教会牧師)

をして、ずいひ顔をしている、非常識人が居る、教会にとって、このような人々は有害無益である。このような人々に限って、教会には人物が居ないと来る、教会人はどうも、愚かで、非常識だと嘆く、どうもこんな方に逢うと、それこそ、「どうも」と次の旬がつけなくなる。教会は二千年の昔から、悲しめる者、病める者、社会から捨てられた者どもを主イエスは呼びあつめて神の愛に触れることの出来る場として、教会を残して下さったのである。教会は、この世の弱い者の愚かなものの為存在し、かつ、弱く愚かなものを、強くなさしめ、社会に生きるにふさわしくして下さる処なのである。なほ大切なことは、教会には人物が居ないと言う当人も、教会人であり教会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る一人であり、その上、人物でないわけである。

信仰の常識から言うなれば社会の愚者、弱者であれ、なほ強くなさしめる事実感謝しつつ、協力して、主の私共に残して下さった事業に努力すべきである。又、教会には色々な型の人間が存在する。八方美人型もあれば、非社交型もあり、俗人もおれば、熱情型もあり、又独善型もあれば、無定見型もあるものである。これら総て、悪い一面から見れば、悪い方の面しか表面に出てこないものである。自分の気に入らぬからと、二次、三次の性癖に気をくさしていると、相手の悪い面ばかりが出て来てまたかと言うことになるのである。しかし教会人、総て神の器である。他人の特徴点を正しく認め、その長所を拡大し得る様、祈り努力するのが教会人の義務である。ここにこそ信仰の本質が存在し、信徒の交りがある。

私の入信記

堺教会 李成基

関西地方会教育部部長
堺教会 教育部長



1930年1月8日、私は生れた故国を後に、その頃堺市内で生活をしておられた父をたよってまいりました。故国でも学校に通っておりましたが堺にて小学校五年級に転入致しました。しかし、今もそうですが、負けず嫌いな私にとっても大きな悩みがありましたそれは組の一人の友人がどうしても組一番で私が二番にしかならなかった事です。思案に暮れたあげく或る日曜日の朝、友人の勉強ぶりを見るべく、訪問すると、友人の母親が、「日曜学校に行つた」と言うのです。私は心の中で叫びました。「なるほど、彼が出来るのは、日曜日にも学校に行つて勉強して居るからだ」と思い、よし私も行くぞと心定め、月曜日になると、学校に行くのも、もどかしく、友人の家に、遠廻りをしてきそい『私も日曜学校につれて行つて下さい』とたのみこみました。その日曜学校では、どんな勉強を教えてくれるのだろうかと期待しながら、長かった一週間も去り、念願かなって友人に連れられ、当時の大小路教会に、出席したのが私のキリスト教との関りが出来た始めです。

その朝は、今も忘れません。宮田先生から「罪の優いは死なり」と言う題で、リンカーンのお話でした。それは有名な、リンカーンが大統領になったとのニュースを、少年

時代の親しい友人が、刑務所の独房で聞いたと言う、その時、私の心に、あのリンカーン大統領もこの聖書を勉強することによって米国で一番えらい大統領になり私の友人も組で一番になって居る。よし私もやるぞ、と言う決心でした。しかし、心のどこかには数学でなく、理科でなく、国語でなく、これでいいのかな？と不思議に思いながら……日曜礼拝の献金には本当に困りました。そこで父に、日曜日に、日曜学校に行つて勉強するからと言うことで、月謝と言うことで、献金の準備を致しました。やはり、最後まで組では一番になれませんでした。学年では二番になり、小学校を終え中学に入り、その頃より、韓国人の集つて礼拝をしている修養に出席する様になりました。中学三年の頃から日曜学校を教える様になり、受洗する頃には当時京城にあった。聖書通信教育を受け、キリスト者になった以上、誰にも負けないキリストの弟子になるのだと、学びました。今から思いますが、子供の頃から、日曜学校に行つておりましたので、特別な事件が、私をして教会の信者にさせませんでした。青年時代は、日本と言う異国にある、私の生活の強い支えに、教会が常になつており、本当に主の恵みに感謝しております。



聖 書

あなたがたは……

わたしの証人となるであろう

(使徒 1:8)

キリスト者は主の証人です
「どのように生活するかに
注意せよ。ある人々が読む唯
一の聖書は、あなたかもしれ
ない」と言う言葉は、今日で
も真実です。ある少女が大都
会のある大会堂を訪れました
がそこで、色ガラスを通して
金色の日光がさし込んでい
るすばらしいステンドグラス
の窓を見ました。少女は、ガ
ラス窓に描かれた人物に目を
留めて尋ねました。

「おばさま、あのきれいな
窓についている人たちはだ
れなの？」
あれは聖徒たちですよ」
「まあ、そう」

と少女は叫びました。
「これでわたし、聖徒とは
何かわかったわ。自分を通し
て光を輝かす人のことなのね」

適切な表現ではありません
か？キリストは世の光であり
わたしたちが生活、行為、言
葉を通して、その光を照すと
きに、初めて、わたしたちは
主のために最善を尽くして生
きるのです。窓の前にあるほ

んのささいな物も、当然太陽
の光をさえぎります。薄いカ
ーテンさえ、その分だけ光
をさえぎります。ひとりのキ
リスト者の失敗、不親切、思
いやりのない言葉などの一つ
一つが、子どもや友人、知人
から、キリストの光を少しづ
つ奪うことになります。私共
は、キリストの証人として、
この世の生活をはげまねばな
りません。

百 万 の 援 軍

日 立 市 服 部 は る を

早天祈禱会の寒い朝
長い白衣をまとった

見知らぬ老婆が
教会にはいつて来た
韓国語のあいさつに
とまどったが
よろこびむかえた
言葉は通じなくても
涙を流しながら祈る
老婆の顔は
天使のようにかがやいてい
た

百万の援軍を得たように
会堂は聖い祈りに燃えた。
☆ 東原姉は、昨年春ごろか
ら教会へ出席されるようにな
った七十二才の韓国婦人です
わたしの説教のことばはほ
とんどわからないのですが、
きま一つ一番うしろに座り、
始終祈るようにして聞いてお
られます。

わたしもほかの兄弟がたも
この老婦人の敬虔な態度には
いつも教えられ励まされてお
ります。

「センセエ、イルカ、オイ
ノリオイノリ」と言って、多
い時には早朝、昼、夕方と会
堂で祈っていかれます。

家族の救い、韓国と日本の
教会の伝道、病気の友のため

高等部夏期修養会だより

在日大韓基督教青年局で主
催する。全国高校青年修養会
は、8月3日～6日三泊四日間
広島市内にある青少年ホステ
ルに施いて開かれ、主題は「
教会に生る」講師、洪永基、
金元治、金徳成、各牧師羅男
先生、であり、礼拝及び運営
の責任にあたる主牧は、堺教
会鄭寿千牧師のもと李国姫先
生及び各クラス担任の先生方
数名でもつて、すでに、教案
及び、運営の為の研究が始め
られて居る。(費用は2900円
の予定である。)昨年より始
められた新しい方法であるが
今年も、礼拝及びクラス生活
を中心にしながら、全体の修
養会が運営なされて行く様子
で高校年代の間に、信仰の確
立、生活方針の確立と言うこ
とが主目的である。又今年の
特色は、青年修養会と同じ場
所で、同じ時になされて、色
々な面で不自由をよきなくさ

れましたが、全く離れて、高
校年代の方々の為の、高校年
代による修養会をと言うこと
にある。かつ主催する側では
高校在生のみ、修養会に参加
する傾向が強くなっている
が、中学校を終えて、社会人
になつての同年代の方々の
参加を強く希望し、同年代の
青年のより良き、交りの場と
なり得る様、運営の面で、新
しいプログラムを準備してい
る。なほ、広島市在住の有志
の志により、期間中、午後一
時、広島市内に点在する。原
爆記念館、平和公園、ドーム
病院及宮島まで、バスでもつ
て案内して下さるとのこと
である。

始めて、西南にもつとも近
い地で、修養会が開かれます
ので、関東の方々は遠くなり
大変でしょうが、今から参加
出来る様準備して下さいと強
く希望して居ます。

神学講座案内

関西地方会青年部では下記
の事く西成、北部(三月毎日
曜日)堺、西宮(四月毎日曜
日)にて、青年中心の講座が
行われる。時間PM5時～8時
題「私は福音を恥としない」
「不信仰の信仰」「対話の精
神」「自由と奉仕」講師は金
元治、喪琪煥、尹宗銀、鄭寿
千各牧師、金安弘先生、

など……涙を浮かべながら
力づく祈られる東原姉の姿
は本当に美しい！

わたしたちは、ことばでは
簡単なあいさつをかわすこと
しかできません。でも、救主
イエス・キリストのもとにと
もにひざまづいて祈るとき、
ことばをこえた幸いな交わり
を与えられ、祈る喜びを深く
知ります。
(百万人の福音三月号よ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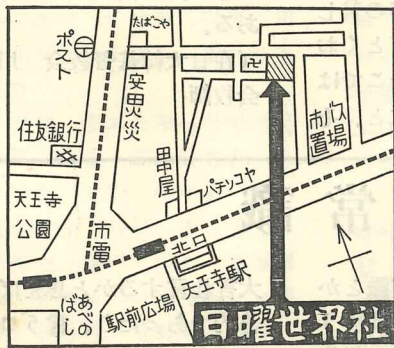
二 月 ・ カ レ ン ダ ー

「新年に入つて早くも二ヶ
月」それぞれの生活に、精を
出しておられると思います。
旧年の反省に加えて、今年の
計画に、卒業に、社会人に、
結婚に、と、各種の出来ごと
が予定される。新年であるで
しょう。それらのことが、予
定の如くに、実現なされる様
にと願います。そして、これ
ら私的だと思えることに青年
部、高等部の主題である。「
キリストあつて生きるもの」
「教会に生きる」と言う、一
つの目標の中にあつて生活し
てほしい、私共キリスト者
には、私個人のことと言えども
完全に私ごと、と言うものは
あり得ない。常にそれは、
キリストとの関係に於いて、
具体化して行くものです。だ
が近年私共教会青年の生活の
歩みを反省して見る時、教会
青年会として、使命に生きる
生き方にも多くの問題があり
ましておや個人としての教会
青年にとっては言うまでもな
い。

単的に私共の生活に、神の
不在とも言い得るほど、ダ
ラシなくなっている。私共が
心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
宗教の歴史が教訓として私共
に残してくれるものに、宗教
人が使命に生きることを止め
た時に、その宗教は、その社
会に必要な存在になつて
化石と化して居る真実である
在日韓国人の社会に、私共

の集団である。在日大韓基督
教青年会が、化石になつてはな
らない。在日韓国人の希望で
あり、光りとして存在しな
くならない基督教青年会が、在日
韓国人とは何の関係もないかの
如くに存在している現実
に、心しなければならぬ。神を
受け入れない社会が悪いと
かたづけられるものではない
最大の原因は、私共の神不在
の信仰にあるのではなからう
か？、教会の組織か、一つの
化石として影を止めているの
みで、そこでは、毎日毎日、
神と人間の応答のなされてい
ない事実が存在しているの
ではないか？、言語の問題の大
きさは否定すべくもないが、
だからとて神の言を聞く努力
をも否定してはならない。み
言を聞く時、み言に従うこと
が出来るとは、心して礼拝
に出席したい、そのことによ
って、私共の生活が転化して
行く第一歩になるものです

私共が神信仰に術する時、
私共は教会に生き、キリスト
に生きるものとなり得るので
す。現実には生きている。私共
の場で、信仰の具体化に努力
する時、私共の生活は希望に
満ち、かつ、在日韓国人社会
にその責任を完了することが
出来るでしょう。本当に、教
会青年として、生きがいのある
生き方を、今年こそはし
ようではありませんか？ (寿)

讃 美 歌 聖 書
キリスト教圖書全般

日曜世界社

大阪市天王寺区悲田院町二八
振替 大阪一六七四電 (771) 〇九八五

聖 書 讃 美 歌
キ リ ス ト 教 書 籍
教 会 学 校 用 品

大阪キリスト教書店

大阪市北区堂島上三ノ二九

電話大阪 (312) 2928 番

振替大阪3009 番

